

실천으로 말한 순수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박영택



이경해 : 1947년 전라북도 장수 출생 ● 1974년 서울 농업대학교(현 서울시립대) 졸업 ● 1974년 9월 장수읍에 서울농장 설립 ● 1979년 6월 장수군 낙우회 부회장 ● 1983년 1월 장수군 농민후계자 회장 ● 1987년 2월 전라북도 농어민후계자 협의회 초대회장 ● 1988년 12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 1990년 2월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 ● 1990년 4월 한국농어민후계자신문사 초대 회장 ● 1990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U.R반대 할복자살기도 ● 1991년 1월 유럽 7개국 농가방문(수입개방 대응방안모색) ● 1991년 이후 전라북도 도의원(1·2·3대) ● 1995년 7월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 2001년 4월 한국농어민신문사 회장 ●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개방 규탄집회 중 할복자살

농민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 이경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도 160여 일이 지났다. “나는 염려 마라. 열심히 투쟁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난해 9월 10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 땅에서 자결한 이 전 회장의 마지막 외침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400만 농민들은 그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내던진 농민운동가였던 고인은 말보다 '실천'으로 농민운동을 펼친 순수 운동가로 우리 농업사에 길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한평생 농군의 아들로 살아온 그의 힘겨운 삶의 여정은 타국 땅 농민투쟁의 현장에서 막을 내렸다. 순수한 농민이 농민 지도자로, 그리고 농권운동의 투사로 변신, 할복으로 최후의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고 이경해 열사의 걸어온 길을 조명해 본다.

학사농군의 '서울농장'의 꿈

*** 이경해 열사는 1947년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66년 전주 농림고등학교, 74년에 서울 농업대학교(현 서울시립대)를 졸업했다. 당시 새마을운동과 4H운동이 활발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때에 주위의 이목을 뒤로 하고 영농현장에 뛰어들었다.

평소 축산 부농의 꿈을 그려왔던 그는 불모지와 같은 땅 1만여 평을 개간하여 쪼ט소를 키우면서 농장 이름을 '서울농장'으로 정했다. 이렇게 시작한 영농생활이 자리잡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학사농군이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몸소 농장을 일구는 데 총력을 기울인 그는 당시 소 70두 이상 키우는 대농의 주인공으로 자리잡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규모화된 농장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서울농장은 영농을 꿈꾸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이 되었고 젊은이들의

견학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인이 고향에 내려와 이런 형태와 규모의 서울농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그의 아내 김백이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백이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동양산악회' 소속이었던 고인은 1970년 초 설악산을 등반하다가 김백이 씨를 처음 만나 결혼하게 된다.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시골로 내려가 함께 농사지으며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늦은 저녁 남산에 올라 "시골 가서 내가 잡은 토끼로 털옷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 이경해 씨의 수줍은 프로포즈였다고 한다. 하지만 장수행을 결정한 직접적인 계기는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참가를 위해 이 전 회장이 훈련을 받으면서였다. 김백이 씨는 그의 에베레스트 길을 한사코 말렸다고 한다. 김씨의 친구가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등반 도중 추락해 세상을 등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산에서 잃는 일은 한 번이면 족하다. 시골로 내려가 함께 농사지으며 살자"고 남편을 설득했다. 그해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를 꽂으며 전국을 들썩이게 할 때 두 사람은 전북 장수로 향했다.

싸전(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을 해서 큰돈을 벌었던 이경해 씨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이 장수읍 대성리 야산에 '서울농장'을 세우게 된 역사는 이렇게 이뤄졌다. 직접 흙벽돌을 구워 만든 신혼집은 부부 방과 손님용 방 한 칸이 전부였다. 그때부터 이 전 회장은 15년 영농계획을 세워 억제재배(채소나 화훼 등을 보통의 재배시기보다 늦추는 재배기술)며 고랭지 채소, 약초 재배 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농대생들에게는 실습장으로 제공해 주었다. 당시 농장에서 한 달에 먹어치우는 쌀만 7가마나 됐다고 한다. 1980년대 초반 서울농장에 들렀던 한 지인은 "두 사람은 그림 속에서 막 튀어나온 동화 속 주인공 같았다. 시골벌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편한 옷차림의 부부는 두 사람을 닮은 세 딸(보람, 고운, 지혜)에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나무에는 부부가 직접 만든 그네가 걸려 있었고 사방에선 풀 냄새, 소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왔다. 부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고 그때를 회고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 김백이 씨가 1993년 전북 장수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받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부가 전주 농민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길이었다. 아내가 운전중이었고 이 전 회장은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어 스무날이 지나서야 눈을 떴다. 아내의 시신은 이미 친지들의 손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고 장수 땅에 묻힌 뒤였다. 병상을 지켰던 이 전 회장의 여동생 이영신(46) 씨는 “오빠는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언니 이름만 불렀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내가 괜찮으나, 어떻게 됐냐’는 질문만 계속 던졌다”고 회고한다.

아내가 죽고 난 뒤 세 딸은 이 전 회장의 노모가 맡아 길렀고 이 전 회장은 농민운동에 더욱 사력을 다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넋을 놓아버릴 정도로 통곡하던 사람이 다시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서 이제 아내에게서 벗어나겠거니 안심했다. 그 뒤 이 전 회장은 안 다니던 교회에 나갔고 세례교인이 되었다. 둘째 딸 이고운(27) 씨는 “두 분은 언제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하셨다”며 부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집은 사람들로 늘 북적였고 엄마는 들판에서 사람들 먹을 밥과 찬을 마련하시곤 했다”며 “한 달에 한번씩 부모님이 읍내로 나가 맛있는 것을 사주시던 기억은 잊지 못하지만 결국 어려운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엄마와 아빠의 목숨이 희생됐다” 라면서 눈가를 적셨다.

농민조직 결성의 중심에 서서

*** 농업·농촌에 대한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아내와 함께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했던 그가 처음으로 농민조직에 관심을 갖고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79년 장수군 낙우회 부회장을 맡게 되면서부터이다. 학사농군이라



90년 가트 본부에서의 활북기도 관련 신문보도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사진제공)

는 입장과 모범적 영농인이라는 주변의 칭찬 속에서 지역의 안내자로 나선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83년에는 장수군 농민후계자 회장, 87년 전북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을 거치면서 그는 농민조직의 중심에 서서 농민운동가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80년대 소 파동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업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던 때, 그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결성하는 데 앞장섰다. 89년부터 91년까지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 제2대 회장을 맡아 명실공히 우리나라 젊은 영농후계 조직을 이끌게 되면서 실리적인 농민운동노선을 추진해 나갔다. 임기 중인 90년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농업전문 언론을 만들기로 하고 전국 5만여 농민후계자들이 주주로 참여한 전국농어민후계자신문사(현 한국농어민신문사)를 창간하여 회장을 맡기도 했다. 89년 제3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의 농부상'을 수상한 것도 이 전 회장의 이같은 봉사 정신과 베푸는 삶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농민의원으로서의 활동

*** 이 전 회장에게 있어 80년대가 조직 창건과 위상제고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90년대는 정부 농업정책의 현장에서 일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고인은 외진 곳에서의 목장운영과 농사일만으로는 현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밖으로 내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치에 발을 들인다. 91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1·2·3대 연속 전북 도의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전북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고인이 도정 질문에서 한 연설내용을 보면 농업·농촌을 위한 활동에 얼마나 몰두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전북지역의 쌀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쌀 판매촉진을 위해 유기농법, 무공해농법으로 특성화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 “전북지역의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도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과 수출 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등 당면한 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민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고인과 호형호제하면서 전북 도의원과 농민운동을 함께 했던 송영선 전 의원은 “이경해 선배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선배였던 게 아니라 생활 및 활동 부분, 그리고 이념과 실천 활동에 있어서 제가 본받고자 했던 이상적인 선배였습니다. 농업관련 건의안을 제안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등 UR 비준, WTO 반대문제, 우리 쌀 지키기 운동 등에 항상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겉보기엔 항상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지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면 굽히지 않고 고집 세계 의정활동을 한 것 같다고 덧붙인다.

고인은 농권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도 자신의 몸을 던져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1년 8월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부근 중의원 회관 앞에서 17일간 단식농성을 한 것이 그 사례이다. 당시 일본은 자

신들의 교과서를 통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지방 의회의 한 의원이 이 전 회장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단식농성을 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과,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 희생자 분사, 역사 왜곡교과서 승인 취소 등 3개항을 내걸고 일본총리의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한국인의 자존심을 과감히 보여 주었다.

몸을 내던지는 투쟁

*** 그러나 고인은 이같은 다양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농권투쟁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약자인 농민들을 대신해, 아니 본인이 농민인 까닭에 그가 선택한 유일한 투쟁방식은 몸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지난 90년 제2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를 정부가 막자 단식농성을 통해 행사 진행의 당위성과 대정부투쟁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94년 국회 앞에서 WTO 이행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면서 홀로 17일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뚝심있고 당당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수입개방과 농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 12월, 그는 전북 도의원 신분으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주장하며 26일간의 단식농성을 실시하는 등 개인의 몸보다는 이 나라 농민의 삶을 걱정하는 투쟁을 펼쳤다.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동료 농민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살기 어려워 이농을 해야만 하는 뼈아픈 농촌 현실을 법 제정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그의 절규가 현실에 반영되었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 실현되고,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단식투쟁의 산 증인이라고 말한다. 7일간의 단식농성도 쉽지 않은데 최소 10일 이상 홀로 앉아 농권운동을 펼쳤던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독한 농민', '투철한 애농 정신의 소유자'라고 평가한다.

백규인 한농연 장수군연합회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일화는 그가 단식투쟁에 임하는 자세를 엿보게 한다.

“고인이 2000년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문제로 농민집회 장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경찰에서 인천 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고인은 단식 21일째였는데 팔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힘없이 축 처져 있는 상태였으나 눈빛만큼은 빛나고 계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각도·시·군 연합회에 전송을 보내면서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행동을 같이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몸은 힘이 없어도 정신은 더 맑아진다고 하시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몸을 내던지는 투쟁은 90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 제네바 가트GATT 본부 앞에서의 할복자살 기도, 지난해 3월 같은 곳에서 또 한번의 투쟁으로 이어져 세계 농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에서 1인용 텐트만을 치고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WTO kills farmers’ 라는 문구를 몸에 두르고 한 달 가량 1인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농권운동을 펼쳤던 그가 왜 이역만리 멕시코 칸쿤 땅에서 자결을 선택했는가.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WTO 회의에서 WTO 사무국에 전달한 자필 서한은 그가 왜 이국 땅에서의 한많은 죽음을 선택했는가를 말해 준다. 그는 이 서한에서 스스로를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던, 그러나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WTO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물결이 결국 극소수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을 WTO에서 제

외시키는 것” 이외에 어느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이며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한다”면서 허구적인 신자유주의에 강력하게 맞서 온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

*** 이 전 회장에 대해 주변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만인을 위한다는 정말 순수한 정신과 생각을 갖고 실천했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조직할 당시 같이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이 전 회장이야말로 실제 조직구성에 앞장선 당사자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고집 센 사람”이며 “집안보다는 농권운동에 전력을 다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몸소 실천한 동지”라고 입을 모았다.

평소 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며 한농연 조직을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손발 걷어 부치고 함께 농민운동을 해 온 이종용 충남도의회의원은 “이경해 동지는 나보다는 상대를, 가족보다 우리 농업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라며 “대인없는 농업 개방정책에 항거하고 우리 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농촌 들녘과 농민집회 현장에서 애끓는 농민 대변자로 살아온 산 증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조평희 한농연 감사 또한 “고인은 80년대 전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조직결성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동지로 농권 사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분”이라고 회고했고 한농연 8대 회장을 지낸 박홍수 전 회장은 “후계자가 되기 전인 85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당시 농민의식을 깨우칠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고민과 함께 협동조합에서 밤샘 토론을 할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다”고 회상한다.

고인은 멕시코 칸쿤으로 떠나기 전 서울 가락동 한농연 회관에서 지인들

과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농연 회관 4층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에도 들러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윤주이 편집국장은 “아직도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 회장의 모습이 생생합니다”라고 하면서 “딸의 결혼 2주일을 앞두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을 생각하면 서글프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칸쿤으로 떠나기에 앞서 2주 앞으로 다가온 둘째 딸의 결혼식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장충렬 장수군 회장은 “둘째 딸의 결혼식에 청첩장을 보내야 할 곳들을 정리해서 내어 주면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남에게 부탁한다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싶어서 다른 때와는 달리 걱정도 하지 않고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였던니 ‘미안하구나.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가서’라고 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고 가셨습니다”라고 회고한다.

멕시코 칸쿤에서의 마지막 외침 ‘WTO kills farmers’

*** 이 전 회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100만 원이 넘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행동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회의에 같이 참여했던 동료 농민들은 고인이 지난 90년 스위스에서 할복자살을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다소 우려했다고 한다. 칸쿤 협상장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숙박을 했다는 한 단체장은 “이 전 회장이 자결을 하루 앞둔 밤에 몇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아 어디 갔었느냐고 물었더니 바닷가에 갔다가 졸음이 와서 잠시 눈을 붙이다 왔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시간에 신변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겼던 것 같다”고 회고한다.

멕시코 칸쿤에서 한농연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 투쟁단에 합류한 그는 칸쿤 중심지 혁명광장에서 전 세계 70여 개국 농민 등 NGO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농민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한국투쟁단을 비롯한 각국 농민들은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칸쿤 컨벤션 센터로의 진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멕시코 경찰과 충돌하자 고인은 "WTO가 전체 농민들을 다 죽인다 WTO kills Farmers"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국 시위대를 진두지휘했다. 운명의 시간은 순식간에 다가왔다. 그는 서정의 한농연 회장과 함께 2m 50cm 높이의 저지장벽에 올라가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업부분을 제외시켜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다 투쟁단에 "나는 염려 마라. 열심히 투쟁하라"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할복한 것이었다. 스스로 찌른, 심장의 좌심방에 난 4cm가량의 깊은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다. 그의 수첩에는 "몸은 먼저 가지만 정신은 지켜볼 것이다"라는 비장한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그의 죽음은 곧바로 멕시코 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일 저녁 멕시코 TV는 이 전 회장이 칼을 뽑아 자기 가슴을 찌르는 장면에서부터 그 날 있었던 시위 모습을 생생히 방송했고, 다음날인 11일 아침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엘 유니바르 샬》을 비롯한 거의 모든 현지 신문이 시위장에서 쓰러진 이 전 회장의 모습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신문 전면을 관련 소식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목숨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투쟁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순간이었다.

WTO반대 투쟁단으로 칸쿤에 참석했던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대표는 이 전회장의 죽음과 관련 "이 회장의 사망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WTO와 초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농업의 피폐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말살에 항의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왜곡과 모략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WTO와 한국 정부에 대해 "지금 당장 WTO 각료회의의 농

업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이 회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결연한 투쟁의지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이 회장의 장례는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농민장으로 치러졌다. 이 회장의 막내딸인 이지혜(22) 씨를 비롯한 유족들과 한농연·전농이 주축이 된 WTO 반대 한국민중 칸쿤투쟁단, 세계 각지의 NGO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

이 회장의 자결은 국내 농민뿐 아니라 세계 농민들에게도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이 전 회장의 장례식 및 추도행사가 열리는 동안 세계의 농민운동가들은 메시지를 보내 이 전 회장을 추도하면서 WTO 무역협상의 본질에 대해 폭로하고 세계 농업인의 투쟁을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세계적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는 "고인의 자결이 협상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거나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농민들을 약탈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하는 실질적인 운동이 국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한번 고인의 자결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의 환경사상가이며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도 "WTO 바리케이트에서의 죽음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인내하던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은 소농을 살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정의와 공정한 무역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열사의 정신 계승

*** 열사의 몸을 던진 순수한 열정의 결과였을까. 고인이 멕시코 칸쿤에서 산화해 간 지 나흘 만에 낭보가 날아왔다. WTO 제 5차 각료회의는 무산된 채 막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5차 각료회의는 시작 전부터 협상에 임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컸던 데에도 요인이 있지만 이 전 회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칸쿤 각료회의는 농업과 비 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싱가포르 이슈 등 각 분야별 노력으로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에 합의를 보지 못해 농업, 비 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기본틀 협상도 못한 채 무산되었다.

국내 농민단체들은 각료회의 무산은 WTO에 온 몸으로 항거한 이경해 열사가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세계 각국은 WTO가 추진하는 다자 무역체제에서 농업부분을 제외하고 식량안보와 소농, 가족농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고 이경해 열사의 몸을 던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농업 및 식량주권 사수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열사의 농업사수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획기적 국내 농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열렸던 고인의 영결식 과정에서 이 열사를 또 한 번 죽이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영결식이 끝난 뒤 열사의 운구행렬이 장지인 전북 장수로 출발하려 했지만 일부 농민들이 “고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청와대로 유해를 모시고 가서 WTO 농업협상 제외와 식량주권 사수라는 이 열사의 유언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무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 여러 명이 크게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다.

고인의 막내딸 지혜 씨는 당시 이 상황을 보고 ‘농부의 아들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400만 농부의 딸이 보내는 편지’를 써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반으로 예비농인이기도 한 지혜 씨는 “아버지 영결식 때 대통령님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TV나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가려 했습니다”라면서 “400만 아빠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슬픔에 싸여 아버지와

같은 선택이 또 생기면 400만 아빠들은 희망이 없어집니다”라고 400만 농민들의 애통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영결식 과정에서 이런 시련을 겪은 후 고인의 유해는 고향인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에 안장됐다. 지금 고인이 안장된 장소를 농민열사 장소로 성역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장충열 장수군 한농연 연합회장은 “고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소 실천으로 투쟁한 산 증인”이라며 “전 세계 농업과 농민을 구하고자 고귀한 목숨을 던진 님의 뜻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라도 묘소를 성역화하는 데 우리 전 농업계가 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의 죽음은 지난해 최악의 쌀 흉년으로 가뜩이나 흥분된 농심에 불을 질렀다. 그의 유해가 돌아온 9월 18일 경북 상주 추모시위에서 30대 농민이 분신했으며, 11월 19일에는 전국 농민 7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농업개방 반대’를 외쳤다. 농민들의 위세에 눌린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굴곡 많은 56년 인생은 한국 농업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개방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 회장은 잘 나가는 농장주였다. 그러나 UR 협상에 따른 농업개방은 그를 농민이 아닌 운동가로 만들었으며, 끝내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철책 위에서 피를 토하며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시던 열사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고인의 농업과 농촌·농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회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400만 농민들은 고 이경해 열사의 뜻을 받들어 농업개방은 대세라 일관하며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을 막고 농촌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서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서 제대로 실현될 때에만 비로소 이경해 열사도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

박영택 | 현재 한농연 장수군연합회 이사. 한농연 장수군연합회 정책부회장을 지냈고, 이경해 열사와는 15
여 년 지기로 농민운동을 같이해 온 사이이다.